

곡성군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정 요건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 지속적 받아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곡성군이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기존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인상해 서

비스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최종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도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준다.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청소년발달장애인은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토요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제공 받을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 1.5%(전일제 기준)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

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올 4월부터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및 인정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곡성군 주민복지과(061-360-8214)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무안군,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 기회 제공

무안군은 오는 2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시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취약계층이다. 선정순위에 따라 확정된 선정자는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 지원받는다. 다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스포츠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스포츠강좌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이경서기자

광주 남구, ‘돌봄 아동 학습·적성 발굴’ 5304만원 투입

기초학습 증진과 특기 적성교육 통한 성취감 획득

광주 남구는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의 기초학습 증진과 특기 적성교육을 통한 성취감 획득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일환으로 ‘인지·언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인지·언어 교육비 지원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영유아 및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연령에 따라 학습지를 비롯해 예체능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올해 5천304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만 3세부터 초등학생 6학년에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인당 최대 2과목에 대한 학습비가 지원된다. 1과목에는 2만원이, 2과목인 경우에는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는 매월 운동과 음악, 미술 등 예체능 활동 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4만원이다.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역시 매월 1인당 5만원씩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가 지원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매월 3만원씩 특별활동 교육비가 제공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재능 발굴과 함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아너소사이어티’ 위성식 강진군의장, 노인대학에 히터 기탁

지난 4일 아너소사이어티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이 강진노인대학에 히터 4대를 전달해 추운 겨울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위성식 의장은 “나눔과 베품에 앞장서서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켜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하는 강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관내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위성식 의장은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80호 회원이며, 2019년 2천만원 기탁 이후 2020년 2천만원을 기탁해 따뜻한 사랑의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7대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2014년

부터 강진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2018년 7월 강진군의회 의장으로 취임하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너 기탁 이외에도 다문화여성 고향 보내주기 등을 10년째 지원해오고 있으며, 관내의 나눔 및 봉사활동에도 힘써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여수 흥국상가상인회, 시전동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전달

여수시 흥국상가상인회(회장 김현균)는 지난해 12월 24일 시전동 주민센터(동장 김정오)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해 후원금 2백 11만8천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140여 명의 상인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김현균 회장은 “요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자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수혜자 황 모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생계비와 병원비에 보탬이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오 시전동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흥국상가상인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함께 사는 시전

동을 만들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